



광주경총, 금요포럼 ‘유럽정세 심층 브리핑’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1일 제1681회 금요조찬 포럼에서 조명진 박사를 초청해 ‘유럽정세 심층 브리핑’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조 박사는 강연에서 유럽의 3대 이슈, 유럽 극우 정당 득세 배경,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총선 결과 및 분석, EU와 G7 러시아 제재 방식과 한계, 유럽 정세 분석에 대한 결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소개했다.

조 박사는 브렉시트(EU) 집행이사회 동아시아 안보전문역, 독일국제안보연구원 외교협회 국제안보 분석담당관과 런던정경대학 박사로 한국인 최초로 EU 집행이사회에서 국제안보와 방산 협력에 관한 자문을 맡아온 유럽 전문가다.

양진석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EU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과 유럽 현지의 고급 정보들을 통해 EU가 우리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가져올 파장에 분명하게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혜안을 얻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사) 호남환경조경단체연합회, 정기 회의

(사) 호남환경조경단체연합(회장 김경섭)은 최근 광주 동경청에서 4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진)

이번 회의에서는 창립총회를 비롯해 법인설립, 행사참여 소식 등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함께 향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연합회는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광주시 주최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여해 시민 2000명에게 조경수를 무료 배포했으며 4월에는 광주 광산구 쌍암근린공원에서 꽃나무를 심는 시민참여 행사에도 동참했다. 연합회는 향후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 2025 정원박람회 추진위원회 구성, 연합회 홈페이지 개설 등 다각적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섭 회장은 “호남 조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단체 간 협력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단체장 및 임원진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광주소방학교, ‘최우수’ 소방교육훈련기관

광주소방학교가 ‘소방교육훈련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사진)

광주소방학교는 소방청 주관 ‘2024년 소방교육훈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소방학교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대형재난의 긴급구조통제단과 다수 사상자 연계 교육을 통해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천형 재난대응 역량 제고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현문 광주소방학교장은 “이번 성과는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최정예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전남도, ‘6·3 대선’ 공직선거법 교육

전남도는 6월3일 예정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선거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1일 도청에서 도·시군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사진)

교육은 류문영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강의를 맡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관계법 △주요 제한·금지사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심재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한 선거의 핵심”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명하고 깨끗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대통령 선거일까지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법 교육과 선거 관여 예방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전남혈액원, ‘고등학생 홍보대사’ 발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광주 고려고등학교에서 2025년도 레드캠페이너 1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진)

레드캠페이너는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한혈 홍보대사로 오는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생애 첫 한혈 서약서’ 모집 운동을 통해 또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한혈의 필요성 등을 권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레드캠페이너는 매달 한혈 캠페인 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SNS 게시 등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 레드캠페이너로 선발된 고려고등학교는 김명훈, 윤세진 지도교사 및 레드캠페이너 학생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선서식, 프로그램 안내, 한혈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발대식에 참여한 한 학생은 “광주·전남지역 고등학생 한혈자를 늘리는 데 팀원들과 함께 한혈캠페인과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승우 기자



건협 광주전남지부, 건강캠페인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8일 쌍촌동 쌍학어린이공원에서 열린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관 행사에 맞춰 건강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13일 건협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뇌파·맥파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종석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신보, 제11대 염규송 이사장 취임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신보)은 지난 8일 제11대 이사장으로 염규송(사진) 이사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염규송 이사장은 광주은행에서 부행장을 역임하는 등 30년 넘게 지역 금융권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로, 지역경제와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재단의 새로운 대표로 선임됐다.

취임식에서 염 이사장은 “광주신보는 광주시와 지역 소상공인의 연결고리로서, 더욱 실효성 있는 보증지원과 현장 중심의 경영을 통해 ‘체감하는 보증,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제29대 김기용 신임서장 취임

김기용(사진) 총경이 여수해경 제29대 신임 서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1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소속 경찰관 등 4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9대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김기용 서장은 대전광역시 출신으로 2005년 간부후보로 입문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팀장,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해양경찰청 대변인 언론팀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서비스 혁신과 ESG 경영,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직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신보는 “염 이사장의 풍부한 금융 경력과 현장 중심의 감각이 재단 운영의 내실화를 이끌고, 보증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게 한다”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더욱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나다운 기자



수사과장,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김 서장은 “여수해경 560여 명의 개성과 열정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겸손과 소통, 실천으로 함께 나아가겠다”며 “동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목포해경, 제29대 채수준 신임서장 취임

채수준(사진) 총경이 목포해경 제29대 서장으로 취임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0일 소회의실에서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수준 신임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학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채 서장은 지난 2007년 경감으로 해경에 입문했다.

이후 동해청 경비안전과장,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 남해청



정보외사과장, 울진해양경찰서장, 해경 국제협력과장과 정보과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채수준 서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경이 되겠다. 따뜻하고 신뢰받는 목포해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조선대, 2025 글로벌대학 혁신기획안 학과 공청회 성료

조선대학교는 최근 학교 대호전기를에서 ‘2025 글로벌대학 혁신기획안 전체 학과 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진)

이날 공청회에는 전제열 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 단과대학장, 학과장 등 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글로벌대학 추진 계획과 혁신기획안 주요 내용 발표, 학사구조 개편안, 조선대·조선이공대·조선간호대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방향, 질의응답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조선대는 지난해부터 광주시 및 다양한 대내외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2025 글로벌대학 성공전략’ 혁신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건강수명 연장, 고령친화 및 시니어케어 산업 육성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웰에이징 특화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전제열 부총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춘 웰에이징 분야의 혁신이 조선대학교의 중요한 사명이다”며 “조선대만의 독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